

전남 농촌 귀농·귀촌 반쪽짜리 전략하나

가구수 매년 증가 불구 1~2인 이주가 대부분

성공 정착 위한 정주여건 지원·제도개선 필요

지난해 도시생활을 접고 '농촌행(行)'을 택한 귀농·귀촌 가구가 처음으로 2500가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남도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지난해 1년간 귀농·귀촌 가구수는 전년보다 460가구 늘어난 2506가구로 집계됐다. 가구원수는 전년 3576명에서 4352명으로 21.7%가 증가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귀농·귀촌의 지

속적인 증가는 최근 1955년부터 1963년의 9년 동안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늘어난 데다 전원 생활을 통한 가치를 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농업도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점도 급속한 증가를 이끈 힘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도시민들의 농촌행 트렌드가 귀촌에 기울어 있고, 열악한 정착 기반 때문에 귀촌을 하더라도 인구증가 외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전남 지역의 경우도 귀농했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귀농인이 늘고 있으며 정착에 실패하고도 어쩔 수 없이 머물러 있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가구원 전체가 이주하지 않고 일부만 농촌행을 택하는 '나홀로 귀농·귀촌'도 문제다. 지난해 전남의 전체 귀농가구 중 1인 전입가구가 전체의 37.1%를 차지했으며, 2인 전입가구는 35.2%로, 1~2인 귀농가구가 대부분(72.3%)을 차지했다.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가정생활을 꾸리지 않은 만큼 정착에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다 이들이 정착에 실패할 경우 농촌생활을 접고 다시 도시로 돌아갈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도시민이 귀농·귀촌을 선택할 경우 자녀 교육과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구원 전체가 움직이지 않고 일부만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자녀는 서울 등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생활하고 부모는 농촌으로 이주, 제2의 인생을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귀농·귀촌인들이 교육과 교통 여건이 좋은 수도권과 주요도시 인근 지역을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별 도시민 유치와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6차산업(1·2·3차 산업이 융합된 산업) 창업을 지원하고, 이들을 6차산업 활

성화의 주역으로 육성해야한다고 말한다. 이 밖에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의 결실들이 되고 있는 농업인 인증 시스템도 시급히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농촌으로 이주해 농지 1000㎡(0.1ha, 302.5평) 이상을 확보해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하는데 이는 농사지을 땅을 살 수 없는 귀농인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도시 유턴 귀농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하고, 귀농 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자금 지원과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KDB산업은행-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협약

KDB산업은행 호남지역본부(본부장 지광남)는 24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GFEZ·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의 업무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 도모를 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정책 금융기관과 지역산업 육성의 선두기로서서의 역할을 충실히 지역산업 발전과 GFEZ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GFEZ는 국내 2위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광양항과 육상 교통망이 잘 정비되어 물류비용이 저렴하고 광양 제철소, 여수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하여 철강, 석유화학 및 첨단산업 등의 연관 산업에 유리한 지역으로 개청 10주년을 맞이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단지 및 배후단지 개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151개 기업이 입주, 127억 달러의 자본 유입과 3만 명이 고용되어 있다.

지광남 산업은행 호남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업금융에 감입이 있는 산업은행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GFEZ내의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의 토대를 마련함에 따라, 향후 지역산업 발전 및 GFEZ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면세점 물품 57%

온라인몰 보다 비싸

컨슈머리서치 조사

해외여행을 할 때 구입하는 면세품 10개종 6개는 면세점 가격보다 온라인몰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롯데·신라·신세계·동화·위귀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면세점 등 7개 면세점에서 판매중인 30개 상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56.6%인 17개 가격이 국내 대형 인터넷몰보다 비쌌다고 25일 밝혔다.

화장품의 경우 조사대상 7개 제품 모두 면세점 최저가격이 온라인 몰 최저가보다 비쌌다. 국산 제품은 물론 수입 화장품도 온라인몰이 2.5~41.3% 저렴했다. 향수인 불가리 OMNIA CORAL(40ml)의 면세점 최저가는 5만5천474원(신세계 면세점)이었지만 온라인몰 최저가는 3만2천540원(11번가)으로 41.3% 낮았다.

면세용 정관정 로얄 플러스는 신라면세점에서 가장 저렴한 18만813원이지만 11번가선 16만7천95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연합뉴스



1000만원짜리 생참치 해체

25일 광주시 서구 가매일식에서 안우성 주방장이 광주대 호텔조리과 실습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참치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날 작업된 생참치는 제주도 근해에서 잡힌 것으로 무게 180kg에 경매가가 1000만원을 넘는다. 참치는 최근 제주도 앞바다에서 대량으로 잡히고 있으며 100kg 이상 되는 것은 마리당 200만원 이상에 위판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보험사도 개인정보 불법 유통

한화생명 등 14개사서 1만3000여건 빠져나가

한화생명 등 국내 14개 보험사에서 고객 정보가 1만3000여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카드사에 이어 보험사마저 개인 정보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권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천남동경

찰서는 지난 24일 불법으로 남의 개인정보를 유통한 혐의로 대부분중개업체 운영자와 보험설계사 등을 구속 또는 불구속했다. 이 운영자는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한국인 개인정보 800만건을 사들였는데 이 가운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회사 14곳의 고객 개인정보 1만3200건이 들어 있었다.

고객 정보가 유통된 손해보험사는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5개사였다. 생보사 중에서는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PCA생명, 동양생명, AIA생명, 동부생명,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9개사에서 고객 정보가 빠져나갔다.

/연합뉴스

진도상설시장 화재 소상공인 특례 보증

전남신보, 업체당 7000만원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계연)은 지난 1월 진도상설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빠른 복구를 위한 지원책으로 재해특례 보증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남신보는 진도군의 재해지역 지정 건의와 중소기업청의 '재해 중소기업 중앙대책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 상인들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고 지난 24일 보증신청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지원대상은 진도군으로부터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7000만원(제조업 1억원)까지 특례보증한다. 대출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연 3%의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료는 연 0.5%로 타 보증상품의 절반 수준이다.

이계연 전남신보 이사장은 "화재 피해기업들에게 신속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 서류접수, 약정까지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061) 729-062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국립종자원, 콩 보급종 추가 신청 접수

7t, 청아콩 3t 등이다.

공급가격은 5kg 들이 포대당 2만 5090원이며, 4월29일부터 5월9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5월10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된다. 문의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061)323-0702 또는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이경일)은 2013년산 콩 보급종 잔량에 대해 4월10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추가 신청 물량은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6개 품종 404t으로 장류용 태광콩 126t, 장류 및 두부용 대원콩 224t, 우람콩 22t, 대풍콩 22t, 천삼콩

www.guemyong.co.kr

이웃 갈등 원인 해결!!
충간소음 방지 바닥재
오리지널 영국 제품
인스타레이

국내최초
경량,중량
충격을
기준통과

충간소음 전용 바닥재 InstaLay®

주택시공기준	경량충격을 58dB이하 중량충격을 50dB이하
수인한도기준	주간 40dB이하 야간 35dB이하

뛰어난 열전도성,충간 중량 충격을 방지,다양한 바닥재 연출, 알맞은 쿠션기능으로 피로방지 및 내구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 - 바닥재 시스템

NAVER 충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바닥재

강화마루, 온돌마루, 모노층, 데코타일(직사각형), 데코타일(정사각형)

전국 시,군,구지역 대리점 모집
문의전화 062-575-9082

(주)금용건설 InstaFloor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대어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에우리웃 맞춤대어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을은행 옆 무례류르 골목)
T.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

금남로 4가 시거리, 금남로 5가 시거리

동부화재 광주지점, 세미빌, 새동골드, 세미빌, 저속은행, 이마트, 퍼시픽, E&K, 기업은행, 무례류르, 신상생명, 송돌대물, 금남로5가역, 학생기대, 이지예우리웃, 오성마을, 광양역앞